

#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장성 경제도시 거듭난다

### 문화·관광 넘어 첨단의료산업 육성 장성비전 2030 중장기계획 보고회 7대 발전 목표·28개 핵심사업 발표

장성군이 '메디컬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꿈꾼다.

장성군은 23일 아카데미홀에서 '장성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문화·관광·농업 분야를 넘어 첨단의료산업까지 아우르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두석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자문위원, 언론인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 설문·공청회 등 지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장성군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는 7대 발전 목표와 28개 핵심 사업이 담겼다.

7대 발전 목표는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스마트 경제도시 ▲기후변화에 부합하는 신성장미래농업 도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매력있는 휴양관광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 ▲이웃이 함께하는

행복복지도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건강한 교육 친화도시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도시다.

관광·농업 등 그동안 장성군이 주력했던 분야에 앞서 '스마트경제도시' 건설을 앞세운 점이 주목된다.

이는 빠르게 진행 중인 초고령화와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지도의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대표 사업은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이다.

지난해 12월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장성 설립이 확정됨에 따라 장성군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심혈관센터연구소, 나노바이오연구센터와 가깝고 사통팔달로 교통이 편리한 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 의료·바이오융합연구소와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바이오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6월 국립야생대작물실증센터를 유치한 장성군은 고부가가치를 지닌 야생대작물을 집중적으로 연구·생산·유통할 방침이다. 또 첨단 무인자동차 농업 보급, 농축산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체계 구축 등도 추진



장성군은 23일 아카데미홀에서 '장성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한다.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관광산업 분야는 '체류형 힐링관광' 활성화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한다.

황룡강과 장성호, 축령산 등 장성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황룡강 '리틀베니스' 조성하고, 마을커뮤니티 호텔 및 힐링 캠핑장 확대,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미디어아트 복합웰컴센터를 운영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장성의 미래 10년 군정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라며 "보고된 계획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정책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강진군, 탐진강 제방 참죽나무 시범 식재

강진군은 최근 군동면 석교리 탐진강 제방에 참죽나무 21그루를 시범 식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재한 참죽나무 높이 4m, 직경 6cm 크기로 지난 2008년 마량면 영동리 군유림에 조립한 수목을 옮겨온 것이다. 강진군은 참죽나무가 목재나 가로수로써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번이 일부 구간에 심었다.

강진군은 지난해 참죽나무 250그루를 밀원수로 식재했으며, 올해에도 1500그루를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으로 추가 식재할 계획이다.

참죽나무는 줄기가 곧게 자라며 가지가 적고 짧아서 좁은 수관을 만든다. 목재는 담홍색 또는 흑갈색이며, 결이 고와 가공도 쉽고 뒤틀리거나 갈라지지 않아 약기재·가구재로 이용되고 있다. 또 4월 중 빨간 순이 13~15cm 정도로 자라면 두껍처림 채취해 데치거나 튀겨 먹기도 한다.

전재영 강진군 해양산림과장은 "참죽나무의 생육상태와 목재·임산물로서의 가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탐진강 제방에 시범 식재했다"며 "효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 임산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담양군, 수정란 이식 통해 고품질 '담양한우' 경쟁력 키운다

### 종축 개량·수정란 이식 사업 설명

담양군이 수정란 이식 등을 통해 담양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담양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담양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축개량 수정란 이식 설명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수정란 이식 수태율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방법 교육과 대상자별 수정란 이식 시기 및 두수 설정 등을 설명했다.

한우 산업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한우 자급률 감소,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축 개량은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 사업 중 하나다.

수정란 이식은 우량 암소를 활용해 수정란을 생산한 뒤 저능력 번식우에게 이식해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담양군은 올해 종축 개량을 위한 수정란 이식 128마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종축 개량을 위해 2009년부터 수정란 이식, 정액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철규 담양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정란 이식 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담양군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강진군이 운영하는 '강진에서 1주일 살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가우도에서 제트보트를 타며 즐기고 있다. (강진군 제공)

##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강진에서 1주일 살기' 인기

올해도 164팀 419명 예약

'강진에서 1주일 살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호응을 받으며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예약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강진에서 1주일 살기'는 이날 현재까지 총 164팀, 419명이 예약해 큰 관심과 인기를 실감하게 됐다.

일주일 살기는 강진군의 농촌민박 브랜드인 푸소(FU-SO)를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관광 공모사업에 적용한 것이다.

푸소(FUSO)란, 필링-업(Feeling-Up),

스트레스-오프(Stress-Off)의 줄임말로 농촌 집(푸소체협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훈훈한 정과 감성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참가자가 6박7일간 농가에서 현지인과 함께 생활하며 강진의 문화, 관광, 체험 등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참가비는 1인당 20만원이다.

최소 2명, 최대 4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참가자들에게는 2인 1실 숙박과 조식 6회, 저녁 2회가 제공된다. 필수 체험인 청자 접만들기와 나만의 음약 만들기 체험이 무료로 제공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나주시 "이달말까지 과수화상병 약 뿌리세요"

나주시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방제 약제를 농가에 지원하고 적기 살포를 당부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1억3000만원을 들여 나주배 재배농가 2178곳(총면적 1946ha)에 방제 약제를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병해충에 의해 잎과 줄기, 가지와 열매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까맣게 말라 죽는 병이다. 지난해 전국 15개 시군 744농가에서 배와 사과밭 등 394ha를 폐원하는 등 최근 5년간 과수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준 병해다.

전염력이 강하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을 통해 병의 심도는 가지 제거와 적기에 방제 약제 살포만이 해결책이다.

나주지역 살포 시기는 25일부터 31일까지로 개화 직전 꽃눈 상태를 봐가며 약제를 뿌리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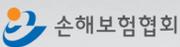
나주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약제는 흑성병 등에도 효과가 검증



나주시 배 재배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된 만큼 농가에서는 적기 방제와 함께 약해 예방을 위해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해야 한다"며 "농작업 중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